

KB와 함께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RaonAtti



구미 YMCA 지역 활동 보고서

RaonAtti 3기 말레이시아 팀

권혁배 노민영 황인실 현예지 이은솔





목차



경북 구미를 가다



구미 YMCA를 알다



구미 Y 에서 체험하다



구미를 느끼다





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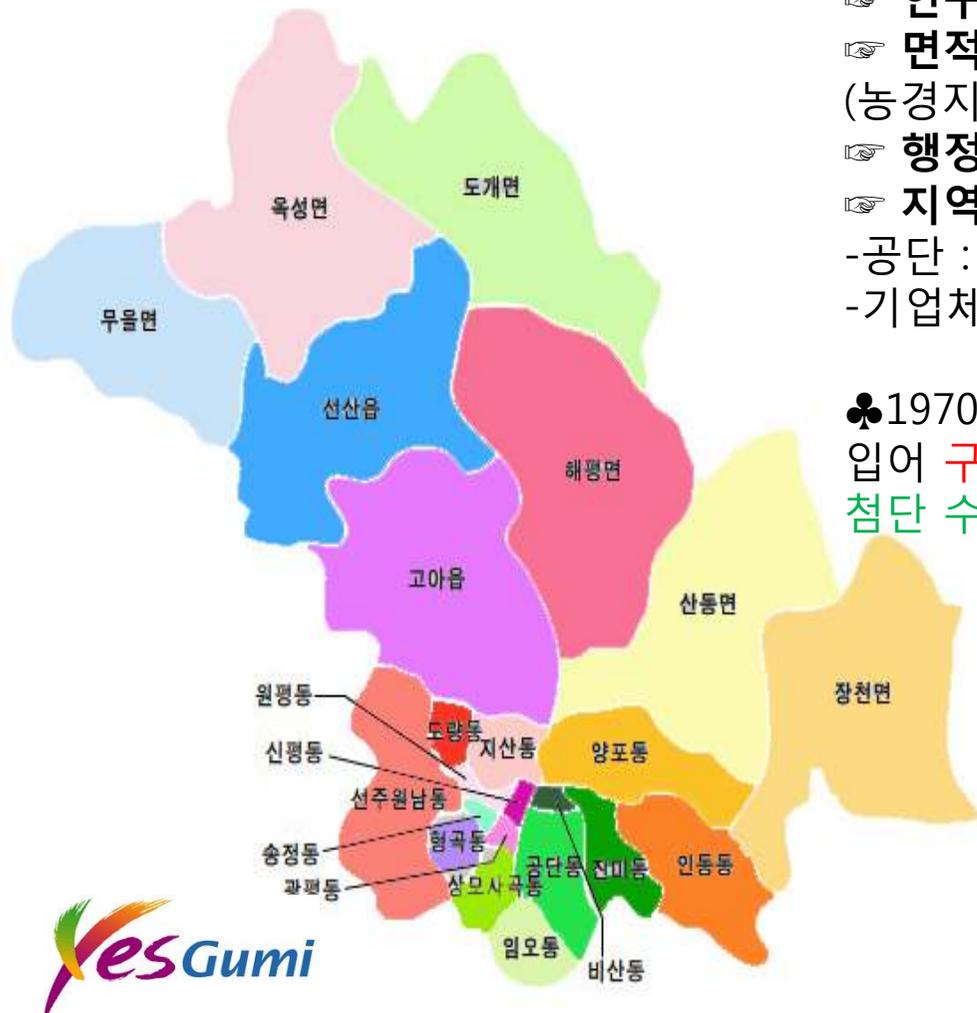


구미 를 가다



- ☞ 인구 : 396,419명(151,440세대), 외국인 4,803명
- ☞ 면적 : 615.53km²
(농경지 22%, 임야 56%, 공장용지 2%, 기타 20%)
- ☞ 행정구역 : 2읍 6면 19개동(168리, 427통, 4,269반)
- ☞ 지역 경제
 - 공단 : 24.7km²
 - 기업체 : 2,000 여개사 - 근로자 8만 여명

♣ 1970년대 초 대한민국 정부의 수출 주도 정책에 힘입어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내륙 최대의 첨단 수출 산업 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발돋움함.



구미 Y 활동 보고서

🚧 구미 YMCA ?!



경북 구미시 송정동
54-15번지에 위치!



🚧 구미 YMCA의 흐름

구미 YMCA의 창립!

구미YMCA는 1985년 4월 26일 대구 YMCA의 도움으로 국제와이즈멘 한국동부 지구 구미클럽이 중심이 되어 당시 신생 공단도시였던 구미의 근로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로서 창립총회를 가진 것이 그 시작!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저장 파이프가 파열되어 30톤의 페놀원액이 대구 상수원인 다사 취수장으로 흘러 들어가 수돗물을 오염시킨 사건. 정부와 기업의 책임감 없는 대처에 사태가 악화되어 국민들의 항의 시위 확대

♣ **구미YMCA**는 여러 시민 단체와 함께 페놀 사태의 대응 운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 운동의 성장에 이바지

🚧 구미 YMCA 활동 현황

나눔운동

지역 복지운동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베이비 시터)

사회교육체육사업

어린이사회교육활동
아기 스포츠단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고아 지역
해평 지역

평생교육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농촌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
성인강좌 프로그램
미래세대 비전 사업
(체험 아카데미)
우리글 배움터

시민사회개발

시민의식 개혁운동
환경운동
소비자 운동

청소년운동

청소년클럽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정책활동

**구미 YMCA
회원 활동**

YMCA 전문활동
각종 회원 활동
국제교류 활동

**아동복지교사
대구·경북
지원센터**

🚧 구미 YMCA 활동 현황

나눔운동

지역아동센터

고아 지역
해평 지역

평생교육원

구미 YMCA의 목표
<생명과 사랑의 아름다운 구미 만들기>

사회 의식 개혁운동
환경운동
소비자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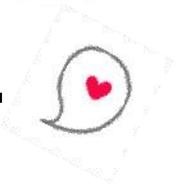
청소년클럽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정책활동

YMCA 전문활동
각종 회원 활동
국제교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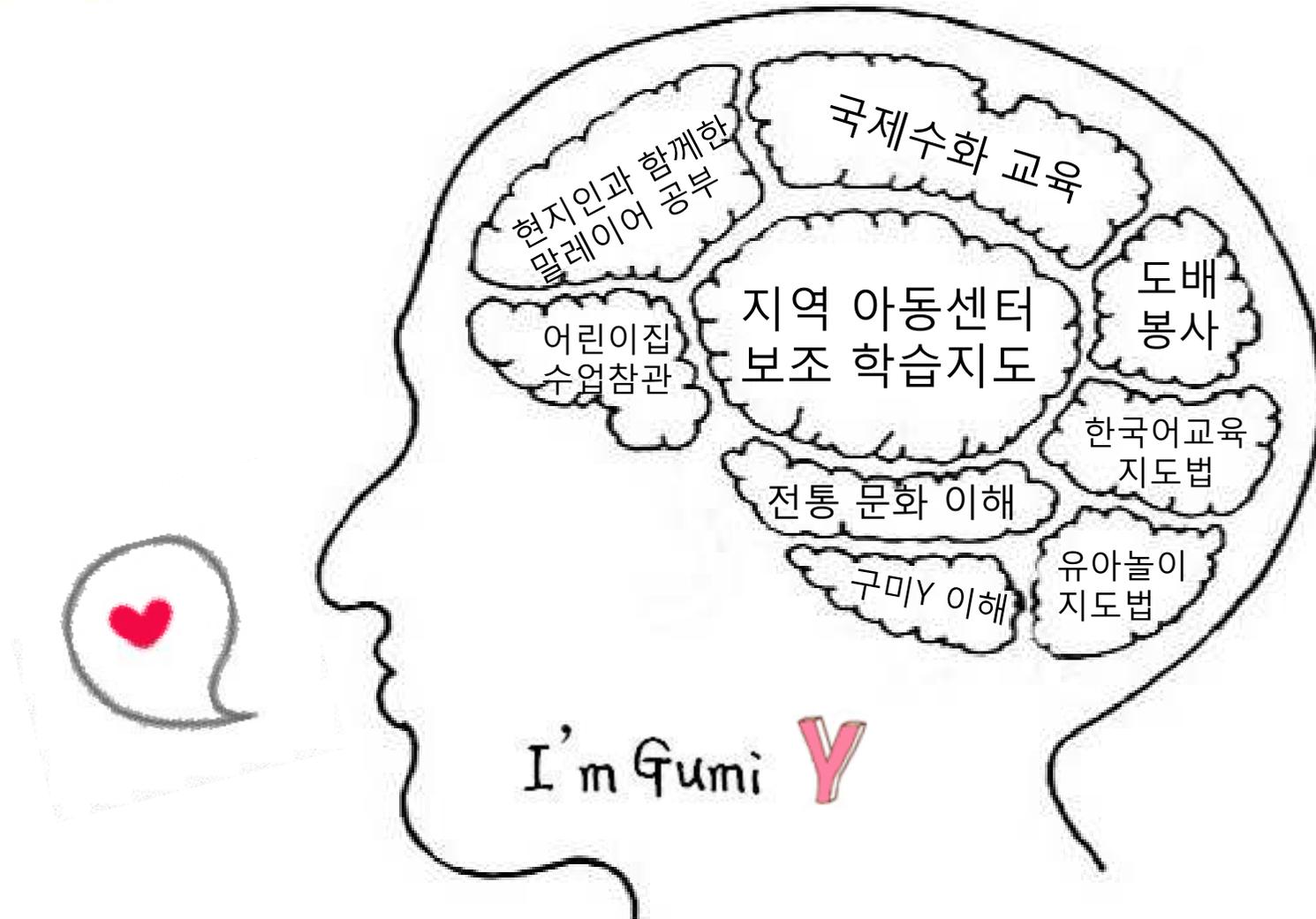
아동복지교사
대구·경북
지원센터

구미 Y 활동 보고서

구미 Y 에서 체험하다



🚧 구미 지역 NGO 인턴십 프로그램



🚧 고아/해평 지역 아동센터로 가다



해평 지역
아동센터로 !!

고아 지역
아동센터로 !!

🚧 고아/해평 지역 아동센터로 가다



해평 지역
아동센터로 !!

고아 지역
아동센터로 !!

2010년 1월 19일 ~ 1월 26일 09:00 - 17:00
두 팀으로 나뉘어 지역 아동센터에 방문!

보조 교사로서의 활동 전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 어린이들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보호와 가
정교육의 보충, 지역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

해평동
신평동
선주
송정동
광평동

고아/해평 지역 아동센터 보조교사 활동



🚧 친환경 교육과 천연 비누 만들기 수업...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비누의 사용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직접 비누를 만들어 보며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필요성을 몸소 느껴 보도록 한다.



🚩 어린이 영어 수업...



[활동내용]

1회기 : 사진에 찍힌 동식물, 사람, 동작 등을 찾고, 그 것들을 영단어로 알아본 후, 게임을 통한 반복학습을 진행함.

2회기 :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영어단어가 나오는 책을 나눠준 후, 영 단어 끝말잇기를 진행함.

[총 평]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영어를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한 후, 그 것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도하였고,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영어에 대한 흥미유도와 학습적인 효과는 물론,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야외 활동 (아동 인솔 교사) ...



구미 시립도서관 (2010년 1월 21일)

약 30분을 이동하여 구미시립도서관 도착, 아이들과 약 20분간 책을 읽고, 시청 각실로 이동하여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를 약 30분 동안 관람하고 센터로 돌아옴.

[총 평]

아이들은 구미시립도서관에 간다는 것에 들떠있었지만, 독서시간 20분은 아이들의 기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었다. 도서관에 간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시간제약이 커서 활동적인 의미가 부족했던 것 같다.

첫 야외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 할 시간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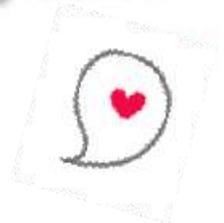
얼음 썰매장 (2010년 1월 25일)

논바닥에 얼음 썰매장을 만들어놓은 마을에 찾아가 아이들과 얼음썰매를 탔다.

[총 평]

야외활동을 통해, 어떤 아이가 소외되는지, 어떤 아이가 소극적 또는 적극적인지를 더 확실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외되는 아이와는 몸으로 부딪치는 활동과, 대화를 통해 그 아이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었던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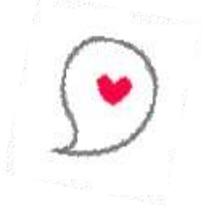
🚧 지역 센터 아동 프로그램 보조 활동...



★ 쿠키 만들기



🚧 지역 센터 아동 프로그램 보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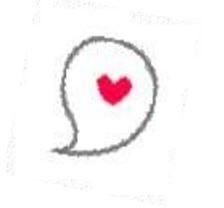


아동 생활 체육시간

과학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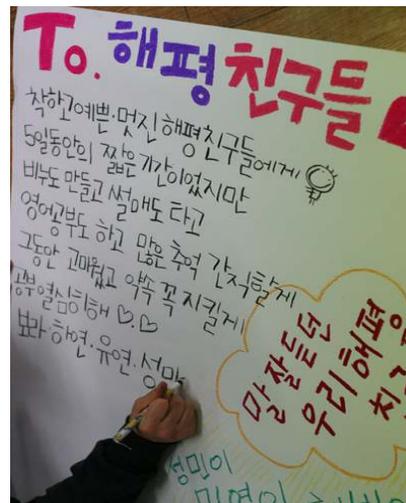


🚧 지역 센터 아동 프로그램 보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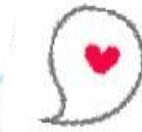


힙합 댄스 교실

그 외 다양한 활동



🚧 국제 수화 교육



[활동내용] / 2010년 1월 21일 (목) ~ 1월 29일 (금)

정육찬 선생님 : 주로 국제수화 (알파벳, 숫자를 비롯한 생활수화)를 교육받았다.

김수원 선생님 : HH캠프 한국대표 인솔자로, 농아인들과의 만남을 주선 해주시고, 한국수화와 수화공연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총 평]

수화도 언어처럼 각 나라마다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웠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 간의 역할극을 통해 생활수화를 응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수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였다.



🚧 외국인노동자와의 만남

[활동내용]

2010년 1월 26일~29일 19:00 ~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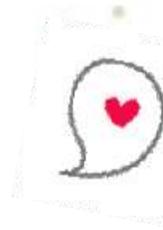
말레이시아와 같은 언어(바하사)를 쓰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우척과의 만남을 통해, 바하사의 억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문화, 환경, 에티켓 등을 배울 수 있었고, 팀원들이 직접 만든 한국음식으로 식사 대접을 하였다.

[총 평]

우척과의 만남을 통해, 외국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언어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관심사를 통해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전통 놀이 체험 및 교육



[활동내용] / 2010년 1월 28일 (목) 18:00 ~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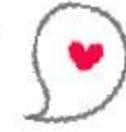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기본 북 장단과, 밀양 아리랑을 부르며 춤사위를 배웠다.

[총 평]

현지에서 장구를 구할 수 없음을 가정 하였을 때, 두드릴 수 있는 북과 같은 비슷한 물건은 손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장구장단 대신 북 장단을 알려주셨다. 강사님의 조언 속에서 우리의 가락은 형식보다는 흥겨움이라는 말씀이 귀에 와 닿았다.



🚩 전통 공예 지도법 배우기



[활동내용] 2010년 1월 20일 (수) 18:00 ~ 20:00

전통한지와 기초 재료를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울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총 평]

한지를 찢어서 풀을 먹이고 거울 틀에 붙이는 작업이 단순하면서도 의외로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을 들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한지공예를 배우면서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구미 YMCA측에서 현지에서 사용할 재료를 제공해주셨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다.



🚧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법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외국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지도를 받는 수업이었다.

<p>일시</p>	<p>2010. 1. 27 (수) pm 2:00~4:00 ~ 2010. 1. 28 (목) pm 2:00~4:00</p>
<p>활동내용</p>	<p>1월 27일 한국어 기초 문법 학습 한글의 모음과 자음에 대해, 모음, 자음 발음, 한글의 받침에 대해, 발음 연습, 글자 조합, 간단한 글자로 단어 만들어보기 등.</p> <p>1월 28일 한국어 지도방법 학습 -인사와 자기소개, 수업에 필요한 어휘, 여러 가지 인사말, 자모교육, 동사, 형용사, 수사, 위치, 가족관계 등 간단한 문장에 대한 연습 교육. -몇 가지 한국어 교육 논문을 통해, 말하기교육과 한국어 교육 방법에 대해 공부함.</p>
<p>총평</p>	<p>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이해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의미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인 사람이 대화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물건을 가지고 제 3의 인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는 TIP을 받았다. 막연히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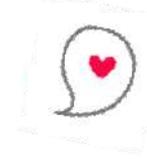
🚧 유아 놀이 지도법 수업 참관



구미 YMCA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아기 스포츠단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예체능적인 활동들을 배우고자, 수업에 참관하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p>활동 내용</p>	<p>1. 유아체육 수업참관 / 2010. 1. 22 (금) am 10:00 ~ pm 12:00 4세 반 :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후, 음악과 함께한 율동수업 종이비행기 날리기 게임, 팀 별 달리기시합 수업</p> <p>6세 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후 팀 별 공놀이와 릴레이 장애물 경기 방법 ☞ 동그란 천을 유아들이 둥글게 잡고 흔들어보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서 흥미를 유발 후, 공을 천 중앙에 놓은 뒤, 함께 천을 올려 공이 튕겨나가 다시 천 안으로 떨어지게 하는 놀이</p>
<p>총평</p>	<p>현지에서 만날 아이들의 대상이 유아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면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꼭 유아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체부자유 장애인들에게는 서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으로 관계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건강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었다. 무엇을 배운다기보다, 어려운 활동들이 아닌 뛰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p>

🚩 유아 놀이 지도법 수업 참관



활동 내용	<p>2. 구미 YMCA 어린이집 수업 참관/ 2010. 1. 27 (수) am10:00~11:00 ~2010. 1. 28 (목)am10:00~11:00 27일-명상을 통한 마음가짐 가지기, 계절 동요 부르기, 다양한 율동, 영어수업 참가.</p> <p>28일-명상, 신문지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신문지놀이 및 모자 만들기, 굴 즙을 이용하여 그림 그리기, 여러 손유희 참관.</p>
총평	<p>아이들과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녁시간에 손유희와 여러 율동을 교육받기 이전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유아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p>



🚩 유아 놀이 지도법 수업 참관



🚧 유아 놀이 지도법 실습

구미 YMCA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아기 스포츠단에서 유아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하고 있는 손유희와 여러 예체능적인 활동을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해볼만한 교구를 제작해보는 시간이었다.

[활동내용] 2010. 1. 27 (수) p.m 4:00~6:00 ~ 2010. 1. 28 (목) p.m 4:00~6:00

♣ 손유희 실습, 도구 제작 및 각종 놀이법, 미술활동 지도법 교육 받음.
♣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활동들: 전래놀이(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생태놀이-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보는 활동, 손유희(손가락 인형)-쥐와 고양이, 난장이, 물고기 등

[총 평]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아이들과 시간이 날 때마다 놀이의 의미로 우리가 만들어간 도구들로 재미난 활동을 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유아 놀이 지도법 실습



🚧 지역 사회 봉사활동 : 도배 봉사

[활동내용] 2010년 1월 24일 (일) 09:00 ~ 18:00

해평 지역의 한 아동가정을 방문하여 안방, 작은방, 주방, 화장실 등 집 전체를 대청소 하고 도배 봉사 보조 역할을 수행(도배 전문봉사자 참여)

[총 평]

아동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의 경계선상에 있고, 무기력증을 함께 갖고 있어 깨끗함의 개념이 부족한 상태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 음식들이 한 가득 있었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과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의 구분이 어려워 모든 물건들이 선반에 쌓여져 있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배봉사 일정이 모든 팀원들의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고된 일정을 통해 팀원 간의 협동심과 배려심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었던 일정이었다. 대청소를 끝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미 에서의 2주,
그리고 구미를 느껴보다...





구미를 느끼다



권혁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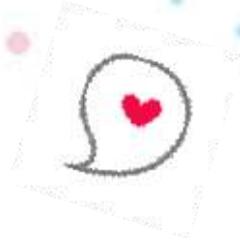
많은 부분을 포기한 시간이었던 양평에서의 2박3일이나 여러 나라의 파견팀 친구들과 뒤섞여 지냈던 드림텔에서의 일정과 달리 지역 NGO 에서의 시간들은 말레이시아에 갈 5명이 모여서 함께 숙식하고 교육과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성격과 취향, 행동양식에 따라 현지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부분들을 많이 느낀 시간이었고 이런 시간을 통해 앞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 가서 생길 내부적인 상황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어서 유용했다고 생각한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의 봉사활동은 늘 그렇듯이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그 동안 비슷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 때문에 크게 인상 깊은 일은 아니었다.

그 동안의 봉사 경험들이 항상 체계적인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의 준비를 통해 어설프게 했던 것에 비해 다양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 깊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구미를 느끼다



지역 NGO 합숙훈련을 통해 내, 외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주간의 합숙을 통해 팀원 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생활에 관한 점을 조율 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경북 구미라는 지역 Y의 전반적인 활동과, 지역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구미 Y간사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많은 프로그램은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교육이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였고,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짧지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3차 훈련을 통해 '나는 잘 할 수 있다'는 다짐과 나 스스로에게 격려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현예지



구미를 느끼다



노민영

이번 2주간의 구미Y에서의 활동은 내 생활을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평상시 학교생활에 쫓겨 만들어진 생활 사이클에서 벗어나 한 박자 물러나 생각할 시간을 마련해주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팀원들 간의 생활을 통해 다수와의 소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좋았던 것은 평소 너무 좋아하는 어린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역Y의 활동모습을 보며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미를 느끼다

2주 동안의 구미에서의 일정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친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구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한 5일은 구미 YMCA에 있었던 중 가장 뜻 깊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보다, 함께 있어서 즐겁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가 현지에 가는 곳은 장애인센터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현지에서도 장애인 아이들과 더욱 친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현지에 있으면서도 구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엽서를 보내는 일도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지역 아동센터 외에 우리는 구미YMCA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수화, 말레이어, 인도네시아현지인과의 만남, 전통 공예, 민속놀이, 유아놀이 등 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용을 채우고 얻어가는 것도 많았지만, 가장 얻었다고 생각이 든 것은 내가 현지에 가서도 연락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우리의 활동을 응원해 줄 '내 편'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심 성의껏 가르쳐주시고 함께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구미Y의 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러한 애정과 진심을 가슴 속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구미라는 지역은 뜻 깊은 곳이다. 13년을 산 나의 고향이자, 아버지의 주된 사역이 이루어졌던 곳. 그 곳에 10년 만에 구미Y의 지역NGO활동을 통하여 다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 있었다. 더욱 더 낮아지고, 사회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바라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꿈을 위해 더욱 나아갈 수 있는 발돋움이었다. 5개월 동안의 말레이시아 활동이 내 삶의 얼마나 바꾸어놓을지 확신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들처럼, 한걸음 한걸음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은솔

구미를 느끼다



황인실

구미 속에 스며들고, 구미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구미 지역의 풀 뿌리 정신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우연한 곳에서 Y 간사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그 외에도 다양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제 인생에 소중한 기회이자 기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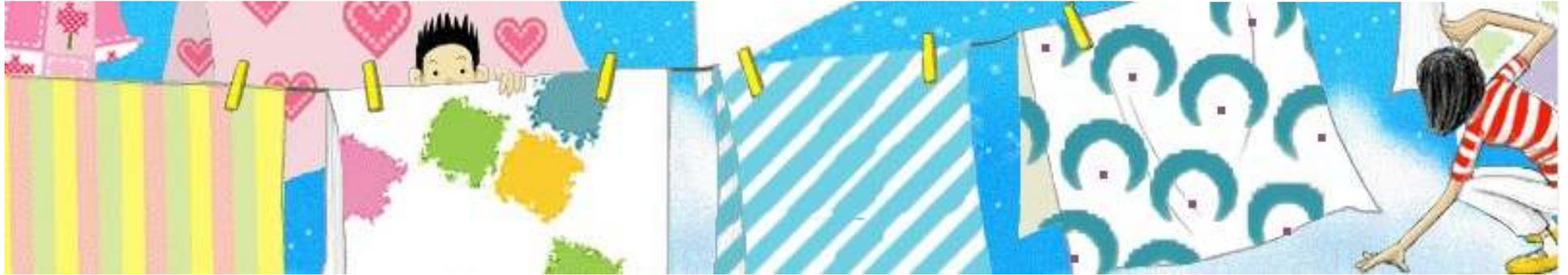
또한 팀원들과 함께한 2주는 각자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알게 되고 내 자신 또한 돌이켜 볼 수 있었던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 임마누엘 칸트



귀미 Y 활동 보고서



Thank You

RaonAtti 3기 말레이시아 팀

